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117-136)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김 상 빈** · 이 원 호***

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특히 여기서 발견되는 주요한 이론적 모델과 국내외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경기도 접경지역에 적합한 분석 틀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접경지역 연구가 오래 전부터 행해진 유럽과 미국 및 최근의 동남아시아나 국내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국경 및 접경지역과 관련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한다. 둘째, 접경지역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들은 초기에는 경계가 가지는 장벽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점차 접경지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셋째, 접경지역을 다양하게 유형화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접경지역이 더 이상 고립되거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지원과 지역협력을 통해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어 : 경계, 접경지역, 월경협력, 이론적 모델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 수많은 접경지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면전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잦은 국지전에 의한 국경분쟁으로 인해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국경분쟁, 러시아 연방 내 러시아 정부와 체첸 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 유럽의 정치적 지형변화는 다시 한 번 경계연구의 붐을 일으킨 중요한 동인이었다.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소나 연구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 지리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동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체제전환 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접경지역과 관련 연구가 지리학의 가장 활발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접경지역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 또 다른 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031)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수석연구원

인으로는 소위 세계화 내지 지구화로 인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등장한 것으로, 초국가적 기업의 탄생,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서유럽국가들 간의 월경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동중부유럽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파생된 새로운 유러리전(Euroregion)이 성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5월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확대(Enlargement of the EU)로 인해, 유럽연합의 외각경계가 새롭게 조정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의 접경지역의 발생과 더불어 가입국들간의 월경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의 변화와 함께 북미의 NAFTA, 동남아의 ASEAN, 환태평양 국가들의 APEC 등 전 세계적인 블록화의 경향이 두드러져서, 각 대륙 혹은 하위의 단위지역들에서 역내 국가간 협력 내지 지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간에 어느 정도 긴장완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한 민원, 또한 수도권의 남쪽으로의 외연적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내지 개발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 하에서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수십 년 간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대상은 선(線)으로서의 정치적 경계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및 행동공간으로 이동·확대되는 등 주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며, 학제적 담론의 교환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면서도 적합한 이론의 부족이 항상 논의되어 왔다(Wastl-Walter & Kofler, 2000). 특히 지리학에서의 경계연구는 지리학이 아닌 타학문, 특히 정치학, 인류학 혹은 사회학의 이론연구에 의존해 온 결과 포괄적인 이론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학제적·이론적 규범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시켜 문제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진한 경계 및 접경지역의 이론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접경지역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이어질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경계 및 접경지역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무엇이며, 그것의 주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주제는 무엇이며 이론적 쟁점 및 모델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 사례에서 개발된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분석의 틀은 무엇인가? 넷째, 해외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경계 및 접경지역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의

경계 및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의를 검토해 보면, 프란츠(Franz, 1970)는, 경계(Grenze)라는 개념은 루터(Luther)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본래는 옛 독일어의 Grenzmark(즉, 변경지방의 행정구역) 혹은 두 지역을 서로 구분

하게 해주는 취락이 적거나 혹은 취락이 없는 접경지역(Grenzraum)'을 의미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선(線)으로 고정되었고 의미도 축소되었다. 안테(Ante, 1995)는 경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구역(Areal)이 갖는 널리 인식되고, 알려진 (영토의) 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특징에 기초하여 다양한 공간들을 구분하는 분리의 선'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쉬빈트(Schwind, 1972)는 한 국가의 정치적 경계를 "그 통치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영토의 범위"로 정의하였으며, 접경지역으로부터 경계로의 의미변환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 전 경계와 접경지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외세에 대응하여 마르켄(Marken - 변방지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행정구역)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선의 의미로 굳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접경지역을 나타내는 'frontier'와 'border'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은 미개발 혹은 낙후한 변경(방) 지역과도 동의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경계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frontier', 'border', 'boundary'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계는 'boundary'를 많이 사용하고, boundary를 국경이라고 보았을 때, 국경의 안쪽을 frontier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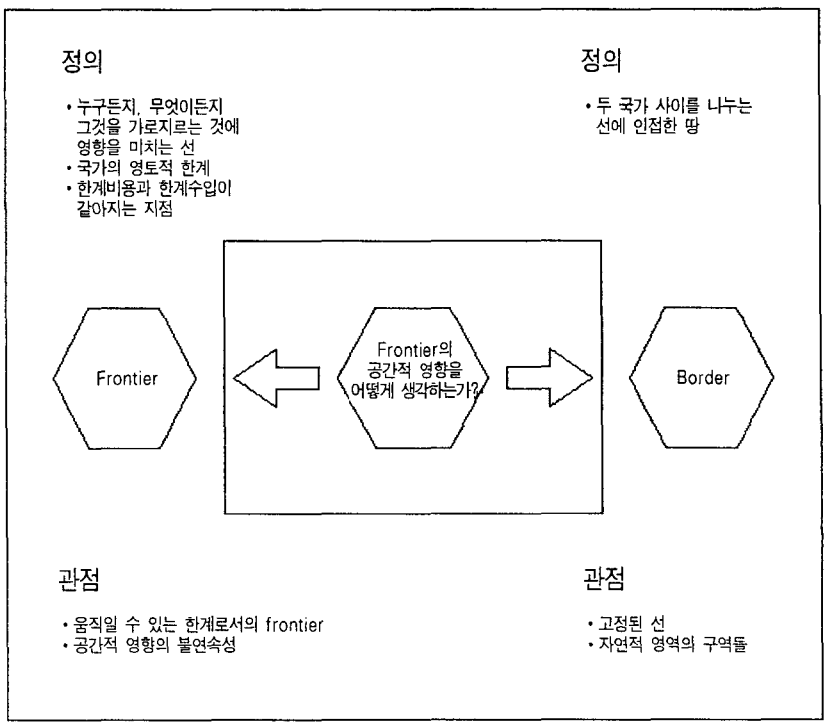

그림 1. frontier와 border에 대한 입장의 차이

출처 : Ratti, 1993

그러나 'frontier'를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공통적으로 frontier의 개념은 한마디로 애매모호함 내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프리드만(Friedmann, 1996)에 의하면, frontier는 중의적(重意的)으로 사용된다. frontier를 가로지른다는 것은 정치적 임계(臨界)를 넘는 것이고, frontier를 탐색한다는 것은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 지역을 탐색한다는 것이다.

라띠(Ratti, 1993)도 사회경제적 문헌을 검토한 결과, 프리드만처럼 frontier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림 1). 하나는 (한 국가의 법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국경(boundary)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의 border와, 다른 하나는 변방적인 혹은 주변부적인 개념을 언급할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보아 frontier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견해인 'border area'로서 보는 것으로서, frontier는 고정된 변방의 선(대부분의 경우에 제도적)에 바로 인접한 영토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서는 경계의 존재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는 변방한계(frontier limit)로 인식하는 견해로서, 경계는 구분선으로의 의미보다는, 외적인 한계 또는 보다 더 유동성이 있는 한계로 간주된다. 또한 경제적인 용어로 경계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장소이다.

3. 접경지역에 대한 이론적 모델

접경지역에 대한 문헌을 검토해 보면 매우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지역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보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일반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및 국내에서 개발된 접경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을 고찰하고, 이것이 접경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함께 한계점도 검토한다.

1) 뢰쉬의 모델

뢰쉬(Loesch)는 상품유통에 미치는 경계선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공간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뢰쉬에 따르면 국경이 미치는 분리작용은 중심지 기능 수요자와 중심지간의 경제적 거리의 증대로서 해석될 수 있다(Boesler, 1983). 국경의 양측에 걸친 유통관계를 중심지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국경이 미치는 분리작용의 강도는 국경 양측에서 동일계층 중심지간의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즉 경제적 거리의 증대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다. 뢰쉬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사례로 은행의 고객권에 관한 모델을 통해 입증하였다. 뢰쉬는 또한 국경을 입지요인으로 보았는데, 국경과의 접근성은 특정상품에 관해 가격차를 출현시켜 상품공급자에게 입지상의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뢰쉬는 선구적으로 국경이 미치는 작용을 거리로 치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뢰쉬의 연구는 경계의 영향을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되며, 후에 이어질 많은 경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선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마르티네스의 접경지역 유형화 모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례 연구로부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낸 마르티네스(Martin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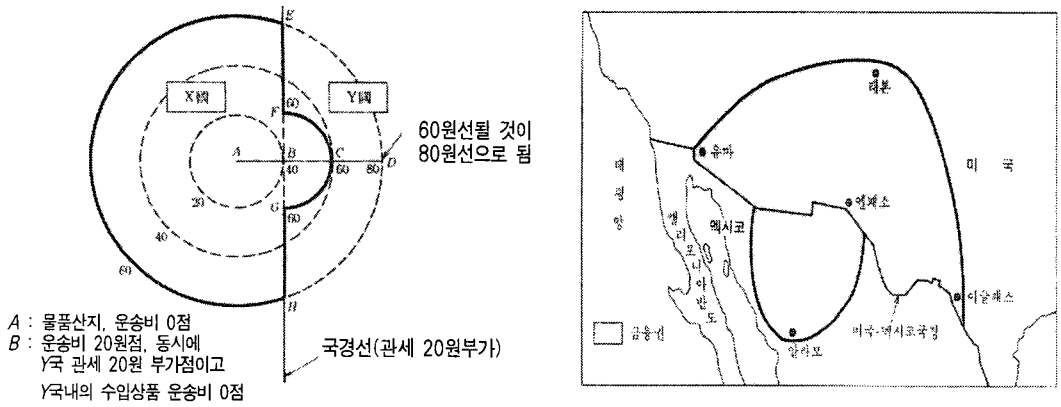

그림 2. 국경이 상품유통에 미치는 영향 - 뢰쉬의 모델

출처 : Loesch, 1943; 임덕순, 199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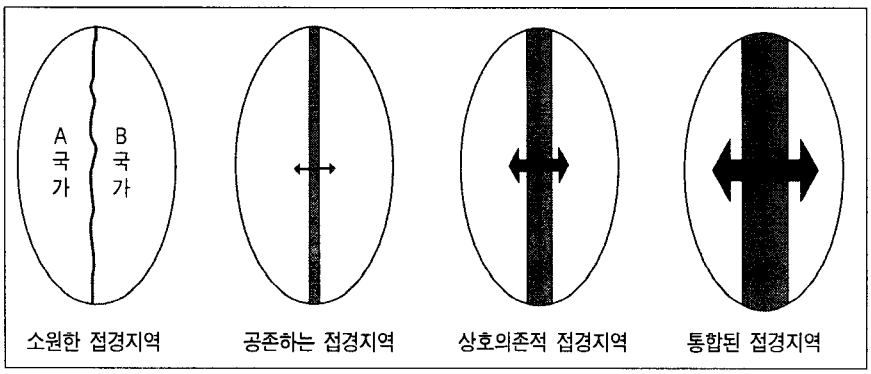

그림 3.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델

출처 : Martinez, 1994

1994)의 연구는 접경지역 연구에 매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그림 3). 마르티네스는 경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소외된 접경지역(alienated borderlands)은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곳으로 경계는 기능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월경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존하는 접경지역(co-existent borderlands)은 시기에 따라 불확실한 안정성이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경계는 제한된 상호협력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조금 개방된다. 셋째, 협력하는(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interdependent borderlands)은 대부분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경제·사회적 보완성이 증대됨에 따라 월경적 상호작용이 제고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접경지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개 친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끝으로, 통합된 접경지역(integrated borderlands)은 영구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진 곳으로서 양국 간의 정치적 경계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었으며,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접경지역의 현상을 유형화하는 이론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가야 할 접경지역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 모든 경계가 주민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접경지역 주민은 소위 '접경지역의 환경(borderland milieu)' 속에서, 동일 국가 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인접한 국가의 주민과 서로의 경계를 교차하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서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월경관계가 잘 발전된 곳은 '통합된 접경지역(integrated borderlands)'으로 분류되며, 다른 극단적인 경우로서 상호교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곳은 '소원한 접경지역(alienated borderlands)'이 된다.

3) 하우스(House)의 모델

하우스(House, 1981)의 주장에 따르면, 접경지역연구를 위한 조작적 모델은 총체적인 월경거래의 흐름(즉 재화, 사람, 자본, 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가능한 한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결집되어야 하고, 구조, 공간, 시간의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의 패턴은 바로 지각(perception)과 정책 그리고 정치적 틀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구조, 공간, 시간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월경 거래 흐름에 대한 지리적 연구의 중심은 바로 '흐름의 공간적 표출'이다. 그림 4는 상호작용의 거리와 방향에 의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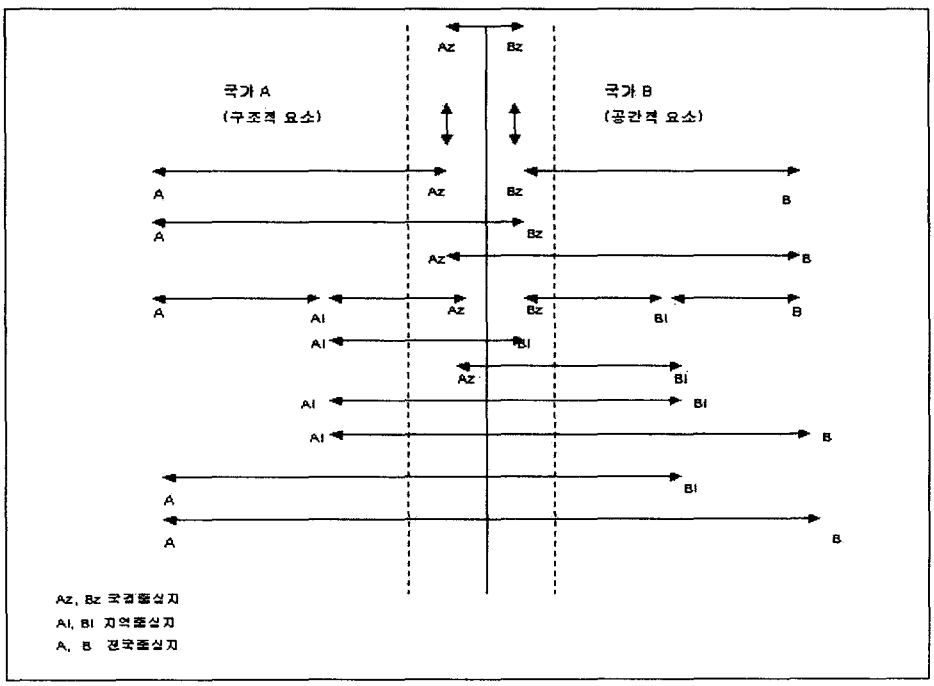

그림 4. 하우스의 국경의 작용에 관한 모델[2)]

출처 : House, 1981

이 모델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접경지역 Az와 Bz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얼마만한 폭을 갖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우스는 이 모델을 직접 리오그란데 강 근처의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에 적용하였다. 접경지역은 조약 혹은 철저한 조작적 정의가 있는 곳에서는 법적·개념적으로 경계선으로부터 측정할 만한 혹은 인지할 만한 거리조락효과(distance-decay effect)의 측면에서 정의된다. 그러한 거리조락의 효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가정될 수도 있으나, 지표 상에서는 정의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모델은 리오그란데 강의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총체적 거래의 흐름이 분석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내 혹은 사이에,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월경적 관계들을 위해 검토될 수 있다.

4) 레찌의 모델: 접경지역간의 관계들에 대한 모델

레찌(Lezzi, 1994)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접경지역에서 정치-행정적 수행자들의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해당기관들 간 혹은 국가간 관계들을 결정하는 다양한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접경지역 혹은 국민국가는 그들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정책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던 간에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다. 레찌는 경제개발 계획에서 경쟁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도적인 모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들은 과제의 수행을 연방정부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미루거나 혹은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중심화 혹은 수직적 협력이라고 한다. 접경지역들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원리로서는 먼저 부정적 조정(negative coordination)에 따르며, 경쟁은 제한되어 있고, 한 지역의 경제발전 계획이 이웃한 지역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들은 예방되어야 한다. 둘째, 긍정적 조정(positive coordination)은 월경적 기관, 월경적 네트워크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분야에서는 지역간 서로 협력이 존재하며, 그 지역 자체의 활동이 공동 목표를 향해 조정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새로운 월경적 기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지역의 상위계층의 기관이 관여한다면 혼합된 월경적 기관 혹은 네트워크도 만들어진다. 셋째, 합병/통합(merger/integration)의 원리로서 모든 지역들의 법안이나 정책들은 총체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이나 주를 합병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 계획에 관련된 모든 권한들이 초국가적, 유럽 국가적 수준으로 이전될 때도 가능하다.

그림 5에서는 이론적으로 접경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전략의 예를 보여준다. 레찌는 라티(Ratti)가 가정한 것처럼, 정치적 경계가 행동에 대한 범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장벽으로서의 경계에 의한 폐쇄된 접경지역에서는 국가의 이익이 지역의 이익에 우선된다. 이 경우에는 월경적 협력이라는 원리는 자연히 배제된다. 둘째, 필터로서의 경계, 즉 반통과적인 경계는 접경지역에 유리한 선택적인 관계를 허용한다. 접경지역은 월경적 협력이나 국제적 접촉을 보다 상위 수준의 정치단위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러한 접촉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도화한다.

끝으로, 접촉의 장으로서의 경계인 경우, 경계가 축소되거나 제거되면, 문제는 연방제 구조를 갖느냐 아니면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를 갖느냐이다. 이에 따라서 긴밀하게 짜여진 월경적 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절대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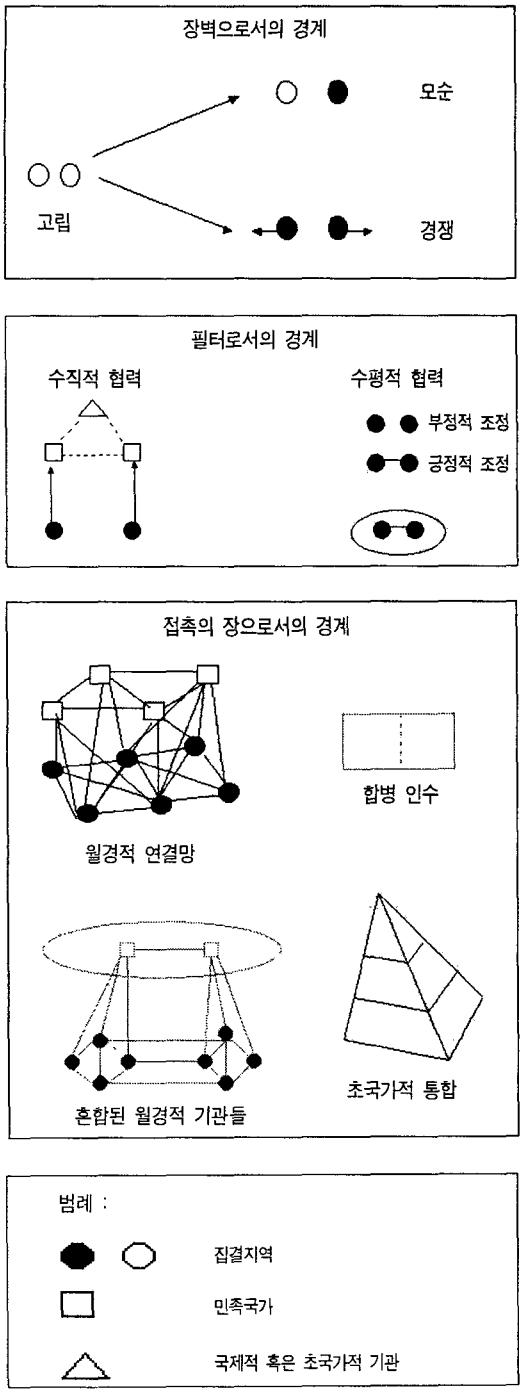

그림 5. 접경지역들간의 관계

출처 : Lezzi, 1994

5) 크래트케의 모델: 접경지역에서 기업간 협력에 대한 모델

크래트케(Kraetke, 1998; 1999)는 독일-폴란드의 접경지역 내 지역경제적 통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에 따르면, 동·중부 유럽 각각의 접경지역이 상이한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왔으며, 미래의 독일-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역발전의 방향 - '저차원적 협력(low road paths)'와 '고차원적 협력(high road paths)' - 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고차원적 협력'은 혁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기업과 정치적 주체들간의 보다 강화된 협력을 통한 내재적 발전 잠재력을 이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협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략은 양 접경지역에서 기술적, 산업적 경쟁력 제고 및 월경협력의 증대와 고차원적인 협력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지역발전을 위한 '저차원적 협력'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화와 상품생산을 목표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조종에 의한 투자가 특징이다. 이러한 방향의 입지우위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에서 상대적 생산비 절감과 저임금 그리고 낮은 고용수준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지향적인 초국가적 기업의 분공장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크래트케(1999)는 기업들간의 월경적 협력을 지리적 범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그림 6). 첫째, 원거리 국제협력(A)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내생적인 발전가능성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국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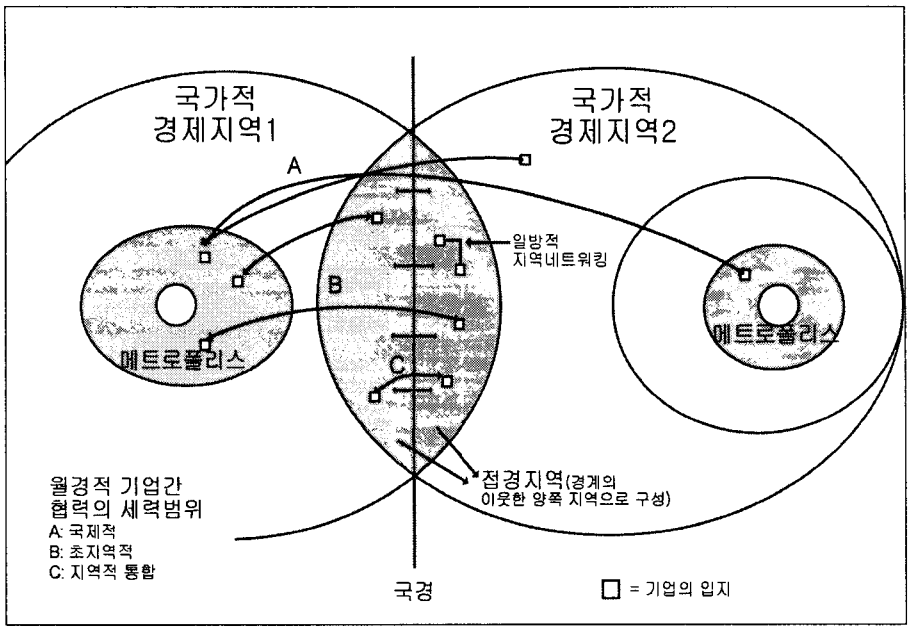

그림 6. 접경지역 기업들간의 월경적 경제 협력의 유형

출처 : Kraetke, 1999

중심에 위치한 도시 밀집지역들 사이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초지역적으로 구조화된 협력(B)로서 이러한 형태의 협력은 한 국가의 대도시권과 다른 국가의 접경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접경지역이 경시되거나 소외된다. 셋째, 지역적으로 통합된 협력(C)로서 이 형태의 협력은 국경 양쪽 지역 접경지역 내 기업들간의 협력을 가리킨다.

독일과 폴란드간의 접경지역에서 저차원의 월경적 지역협력이 확인될 수 있다.[3]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월경적 경제발전은 단지 C형태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은 접경지역에서 기업들 간의 월경협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간의 협력은 구동서독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한 접경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저차원적 협력'은 결코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발전은 단지 개별기업들의 집중적 혁신과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기업들간의 지역적 네트워크의 건설이 접경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이다.

6) 김원배의 월경적 지역협력의 유형 모델

김원배(2002)는 동북아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모형과 이론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사회문화적 기반에서의 유사성이라는 기초 조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월경적 협력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정책이나 제도상의 양립성은 중단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의 모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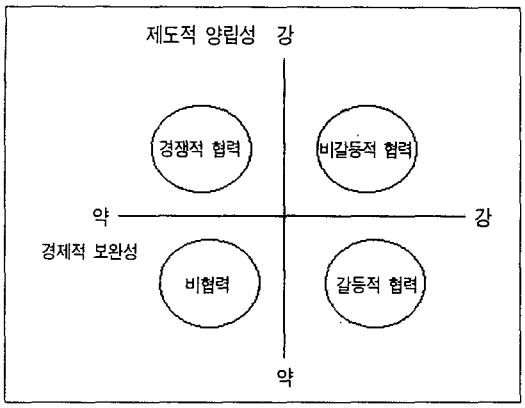

그림 7. 월경적 지역협력의 유형

출처 : 김원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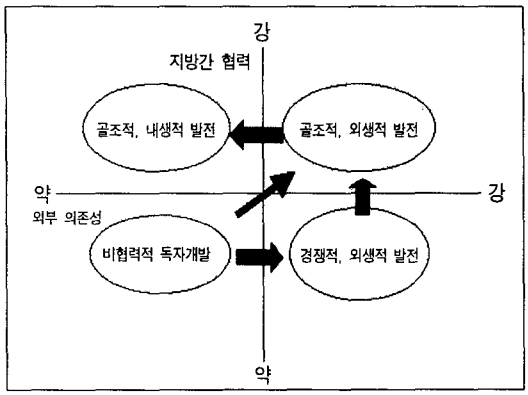

그림 8. 지역발전의 경로

출처 : 김원배, 2002

도출하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의 월경적 협력은 지난 10년간 '비협력'에서 '갈등적 협력' 또는 부분적으로 '경쟁적 협력'이나 '비갈등적 협력'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원배, 2002).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토대로 김원배는 이들 월경지역의 발전 모형(그림 8)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국가 내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협력과 통합의 수준에 따른 내생적 또는 외생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발전 경로는 대체로 비협력적인 독자적인 개발에서 외부 의존적인 개별적 개발 또는 외부 의존적 · 공조적 개발의 형태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에서 탈피하여 공조적 · 외생적 발전이나 공조적 · 내생적 발전으로 나아가는데는 제도적인 양립성 제고와 연계 비교우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6가지의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들이 경계와 접경지역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 제시한 6개의 모델이 접경지역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들이라고 사료된다. 표 1은 앞서 제시한 모델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특징별로 정리해 보면, 첫째, 뢰쉬와 하우스 모델의 주요 관심은 국경 내지 경계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마르티네스의 모델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접경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한 점이 많은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쳤고, 접경지역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모델이다. 셋째, 레찌, 크래트케 그리고 김원배의 모델은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레찌의 모델에서는 접경지역의 제도적 기관들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크래트케의 모델에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업들간의 협력의 형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간의 협력을 통해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지역협력에서 발전의 최종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이상적이며, 접경지역간의 내생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경계와 접경지역 모델에 대한 요약

	모델의 주요한 특징	이론적 배경 (관련 이론)	사례지역
뢰쉬 (Loesch)	상품유통에 있어 국경의 영향 분석, 장벽으로서의 경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	공간이론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
마르티네스 (Martinez)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을 4가지로 유형화, 행위자 중심의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의 환경(border milieu)에 대한 분석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
하우스 (House)	월경적 거래의 총체적 흐름 분석, 이를 통해 흐름의 유형화	중심부-주변부 이론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
레찌 (Lezzi)	접경지역에서 정치, 행정적 주체들의 행동에 주목	행위자 중심의 지역개발	스위스-독일 접경지역
크래트케 (Kraetke)	접경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의 월경적 협력관계 유형화,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생존전략 모색	조절이론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지역
김원배	월경적 지역협력의 유형과 지역개발의 발전 경로에 대한 모델제시	지역발전 이론	동북아시아의 접경지역

자료 : 필자 정리

4. 접경지역의 사례연구 동향

본 절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해외사례와 국내 사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는 워낙 광범위하지만, 가장 접경지역 연구가 활발한 구미 사례와 최근에 월경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외국 사례연구

(1)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

미국과 멕시코간의 접경지역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벽으로서의 경계 극복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이룬 것을 다루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개발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과 멕시코의 저임금을 이용한 미국기업의 분공장이 특징적인데, 국제분업을 통한 산업발전은 이 곳을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장시켰다(Wu, 1998). 멕시코 노동자의 미국입국을 금지함에 따라 멕시코 북부의 접경지역은 기존의 높은 실업률이 더욱 가중되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완화가 선결과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멕시코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장기적으로 북부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의 핵심이 마킬라도라 프로그램(Maquiladora Program)이다.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란 멕시코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재, 기계, 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총칭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결과는 기업의 수나 종업원 수의 급격한 증가, 그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1965년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초기 이 지역은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순조립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전자 및 섬유산업으로 전환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동차, 전기,

운송, 통신 등의 분야로 대체되었다. 둘째, 점차 고도로 숙련된 기술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멕시코 전체 평균보다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국-멕시코의 국경지대에 대한 테마형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하여 각종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접경지역에서도 미국측 운수업부문의 고용확대와 창고, 물류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북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주들은 1인당 총생산면에서 수도권을 추월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지향의 경제구조와 관련 있으며 외국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단일통화를 추진하여 달성했고, 경제적으로 국경없는 유럽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접경지역 연구는 타지역에 시사점을 주기 위해 기존의 주요산업지역(라인강 상류, 바덴뷔르템베르크, 에밀리아 로마나)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 지역들이 단일한 경제단위가 될 것이며, 기업들의 연계망이 갖추어진 초국경 접경지역이 핵심 센터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초국경적 개발은 민족적·문화적 갈등과 교통의 병목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접한 접경지역간의 협력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발트해연안 국가들 간의 월경적 협력, 구체적으로 'The Baltic Sea Region(BSR) INTERREG III B'[4]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 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의 지원을 받는다. INTERREG의 선행 목표는 유럽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양하기 위한 초국가적 지원이다. 발트해연안 지역(BSR)은 13개 유럽의 INTERREG III B 지역 중의 하나이며, 총 11개 국가들, 즉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와 2004년 유럽연합 가입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아울러 러시아, 백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발트해 지역의 경제·사회·공간·환경적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초국가적 프로젝트 활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INTERREG III B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징은 국가적 협력에 의해 공동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데에 있다. BSR프로그램은 이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지역들을 위한 공동전략, 행동수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분야(에너지, 관광 등)의 지속 가능한 공간 개발을 진흥시키며, 해안지역과 도서지역 및 다른 특수 지역들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3) 홍콩과 선전(深圳)의 관계

홍콩과 선전 사이의 접경지역은 지난 20년간 많은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선전 자체와 주장강 델타 전체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선전의 발전은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크게 이루어졌다. 선전의 발전뿐만 아니라 홍콩의 제조업과 선전의 신산업 사이의 공생적 경제관계에서 기인한 홍콩의 경제구조변화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전은 5개의 경제특구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홍콩과 인접해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신제품, 서적 등이 특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의 관리선 또는 경계선으로 사람과 동

물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선전 경제특구는 지난 1980년대에 농업 등 제 1차 산업 종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공업부문, 서비스 부문 등의 취업자는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선전의 사회총생산액은 1981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12년간 130배로 성장하였다. 선전 경제특구 초기에는 의류 및 섬유제품 제조업과 식품가공업이 주축을 이루며 성장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공업 생산액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사회주의 저개발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개혁 개방 창구로서 선진 기술 및 자본 그리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중국 경제체제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중국경제 특구의 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은 무엇보다도 홍콩, 대만, 마카오라는 배후지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1990년대 이후 중국 광동성이 홍콩의 배후산업지역으로, 푸젠성이 대만의 배후산업지역으로 발전한 것은 바로 접경지역의 산업체계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4) 싱가포르(Singapore)와 조호르(Johor)-리아우(Riau)

이 사례는 싱가포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남부의 주 조호르, 인도네시아의 바탐섬과 리아우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주시키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소위 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성장삼각형(growth triangle)은 실제로 이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림 9). '성장삼각형'이라는 단어는 싱가포르 총리의 특사 고촉통(Goh Chok Tong)이 싱가포르, 남부 조호르, 인도네시아의 바탐 섬을 포함하는 하위지역의 경제협력을 표시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에 사용한 후부터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성장삼각형 개념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전 지구적 경쟁과 보호주의 환경정책 하에서 세 국가들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지역간 협력의 효과적인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상이한 자원과 비교우위를 가진 이 세 지역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무역의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비교우위의 차이는 서로를 보완하며, 경제협력과 통합의 형성 및 강화를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의 공식적인 제도화는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유용한 채널을 제공한다. 삼각형 내에서 투자와 무역을 제약하는 제도적, 법적 및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제약요인의 개선은 상당한 투자와 무역을 증대시킨다. 리(Lee, 1997)에 따르면, 이 '성장삼각형'으로부터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성장삼각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다. 둘째, 정부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혼합되어 있지만, 성장의 엔진은 분명히 민간 부문이다. 셋째, 참여지역을 위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한다. 넷째, 참여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대비해야 하며, 그것들을 섬세하고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성장삼각형은 소규모로 출발해야 하지만, 원래의 참여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 성장삼각형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한 근거는 참여국가들을 위한 추가적인 경쟁우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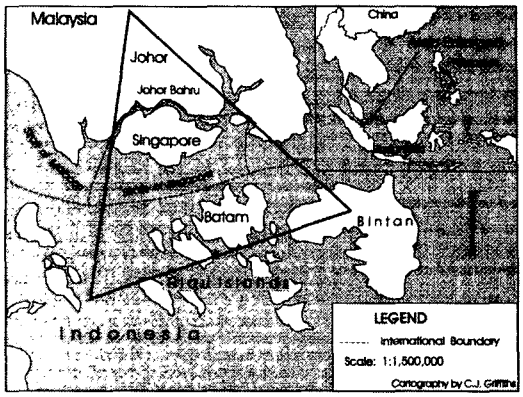

그림 9. 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성장 삼각형

출처 : Lee, 1995

오늘날 성장삼각형에 대한 논의는 비단 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장삼각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간 월경적 경제협력 또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성장삼각형뿐만 아니라 ASEAN(동남아국가연합),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의 월경적 협력을 위해서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 동아시아 경제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호주·뉴질랜드 간의 경제강화협정을 통해서 긴밀한 월경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에서는 NAFTA를 통해 북미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2)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통일과 관련된 논제와 함께 서서히 핵심적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가지 경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교류확대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관련 연구가 가장 많다. 이는 학위논문, 여러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세미나 및 대담 자료, 공청회 자료의 형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셋째,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경지역 연구 등이 상당히 활발하다. 넷째, 접경지역을 정치적 국경이 아닌 접촉지점으로 인식한 연구도 있다. 도·농간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과 중심도시간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지역을 사례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다섯째,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외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연구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이후 접경지역의 활용측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실태 및 개발계획,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려는 연구와 접경지역 개발에의 민간자본 참여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이진순, 2001; 동용승, 2000). 또한 부동산학적인 접근으로 접경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지가 되지만 개발계획이 통일만을 목표로 성립될 수는 없는데, 이는 개발에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접경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군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개발은 타 지역의 경우와 달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해, 통일비용의 절감, 환경보존 및

군사적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최근 그간의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개발요구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접경지역주민들에 의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접경지역일대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천연생태계의 보고이므로 절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주장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학계에서 보존 또는 개발우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들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을 자연생태계의 보존정도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지역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방향설정(박용순, 2001; 고재두, 2000; 최주영, 2000; 송성태, 2001)과 그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장병하, 1998).

접경지역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에 있어 국책연구소 보고서의 경우 '국경'의 개념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법을 통한 현상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도 접경지역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파생적 개념에 의존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접경지역 그 자체를 하나의 독특한 주제로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고 행정학이나 부동산학, 지역개발학의 한 주제를 접경지역이라는 사례지역을 통해 접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순수한 이론적 접근이나 이론도출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학문분야별 이론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다룬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연구가 오래 전부터 행해진 유럽과 미국 및 최근의 동남아시아나 남중국 그리고 국내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계나 접경지역의 개념에 대한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연구에서 개발된 초창기 모델들은 경계가 가지는 장벽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점차 접경지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접경지역이 접촉의 장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셋째, 이론적 모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런 유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유럽 및 미주에서는 접경지역이 더 이상 고립되거나 변방지역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유럽국가들간의 접경지역 협력(가령, 유로리전의 형성)이 활성화되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정책(인터렉

프로그램)과 유럽연합 확대에 의해서 과거의 접경지역이 지리적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구의 초창기에 불과한 상태이며,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앞선 논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접경지역 연구,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연구를 위한 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외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접경지역 연구는 거의 대부분 경계 양쪽의 접경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접경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모델들을 경기도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아직은 북한쪽 접경지역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틀로서 경기도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한 분석의 틀로서 다른 낙후지역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경에 바로 인접한 지역간 상호작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초국경적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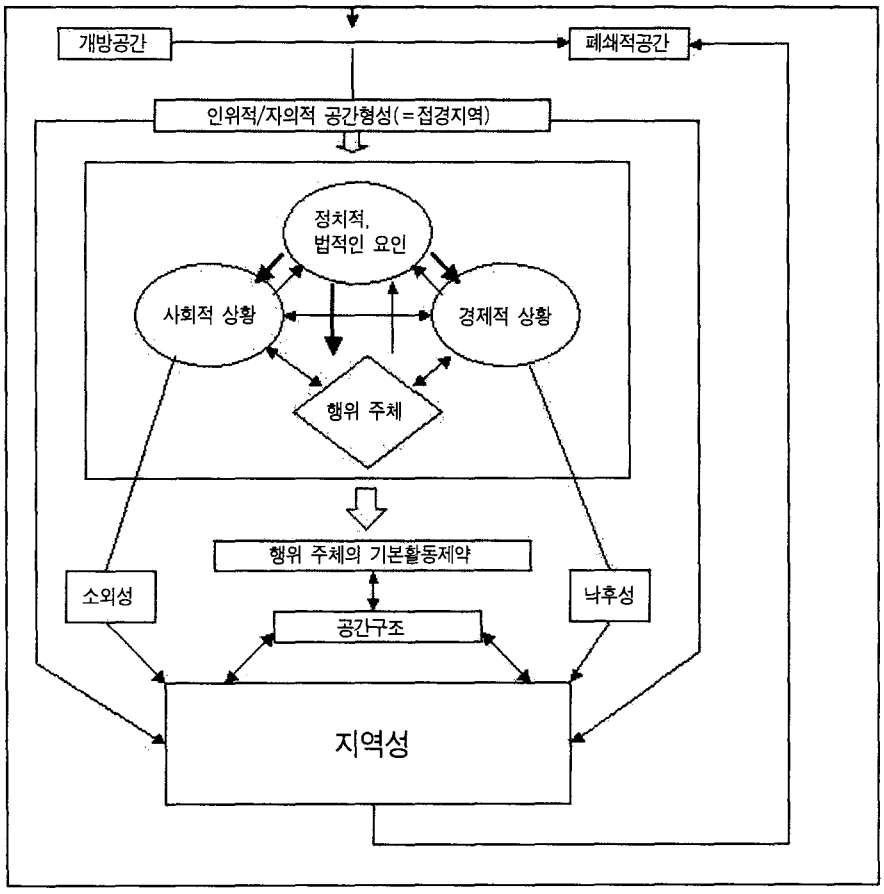

그림 10. 경기도 접경지역 이해를 위한 틀

력도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럽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월경적 학습지역(cross-border learning region)의 형성도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발생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적 힘이 작용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개방적인 공간이었던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후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의 지역과는 상이한 인위적이고도 자의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전후(戰後) 처리 결과로, 우리나라 군사분계선도 자연적인 공간이나 문화적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도 접경지역은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및 정치적·법적인 요인들이 행위주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정치적·법적 요인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접경지역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이것들이 결국에는 행위주체의 기본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행위주체의 기본활동 제약은 공간구조에 반영되고, 결국은 이것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특징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낙후성과 소외성을 구조화시키면서, 다시 접경지역의 공간구조에 반영되는 형태라고 사료된다.[5)]

주

1) 임덕순은, (2003년 5월 31일 개최된 대한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경에 대한 용어 사용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국경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boundary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border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개념으로 최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boundary보다는 border가 최근에 훨씬 많은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boundary는 과거 국경선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이 사용하던 용어였고, 현재는 국경의 의미가 과거보다 축소되었고, '국경없는... (borderless)'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border가 boundary를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사려된다.

2) 한 국가의 중심(A)과 이웃한 국가의 중심(B)을 연결하는 흐름; 중심부와 주변부(A to Az, B to Bz), 또한 인접한 국가의 주변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Az to B, Bz to A)으로의 흐름; 지역중심지(Ai, Bi)에서 각각의 국가의 중심부, 지역의 중심지, 주변부로의 흐름;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Az-Bz), 교차월경 혹은 동일한 접경지역에서의 흐름.

3) 예를 들면, Kraetke et. al., 1997; Heeg, 2000 참조

4) 인터렉(INTERREG)에 대한 내용은 http://europa.eu.int/comm/regional-policy와 김상빈(2002)을 참조할 것.

5) 접경지역을 하나의 지역이라고 간주하였을 때,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성의 규명은 지역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특히 폐쇄된 접경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낙후성과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소외성을 연구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참 고 문 헌

고재두, 2000, "접경지역 생태관광 도입방안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빈, 2002, "지리학에서 경계연구의 동향 - 중·동부 유럽을 사례로," 지리학 논총 40호, pp.1-18.

김원배, 2002,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 - 월경적 지방간 협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김재한, 1998, "유럽연합의 접경지역협력: 경험과 전망," 청주대 교육과학연구 11(3), pp.159-177.

김학훈, 1998(a),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pp.81-112.

김학훈, 1998(b), "NAFTA와 미국-멕시코의 무역," 지리환경교육 6(1), pp.101-115.

동용승, 2000, "남북교류 협력시대에서의 민간부문투자: 남북한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논총 2(2), pp.43-53.

박용순, 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에 관한 연구 - 파주시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성태, 2001,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 토지연구 12(2), pp.71-96.

윤홍준, 2001, "접경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전 · 백종국, 1997,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 NAFTA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2(2), pp.155-174.

이진순, 2001,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현주, 2002, "유럽공동체의 개방공간상에서 보완지역간의 초국경적 통합 - 프랑스 접경지역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제40호, pp.37-60.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원리 - 이론과 실제, 2판.

장병하, 1998,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철원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e, U., 1995, "Grenze," in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ed.), *Handwoe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pp.432-436.

Boesler, K.-A., 1983, *Politische Geographie.* Braunschweig: Westermann.

European Union, 2000, *Community Initiative INTERREG II 1994-1999 : An Initial Evaluation.*

Franz, G., 1970, "Grenze - A : Allgemeine Grundlegung," in Akademie fuer Raumforschung und Landesentwicklung(ed.), *Handwoerterbuch der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2nd. ed.*, Hannover: Verlag der ARL, pp.1060-1064.

Friedmann, 1996, "Introduction - Borders, Margins, and Frontiers: Myth and Metaphor," in Gradus, Y. & Lithwick, H., *Frontiers in Regional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pp.1-20.

Heeg, S., 2000, "Industrielle Kooperation in der Textil- und Bekleidungsindustrie im deutsch-polnischen Grenzraum, in Danielzyk, R., Mueller, B., Priebs, A. and P. Wirth(eds.),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 Regionale Strategien auf dem Pruefstand* (IOER-Schriften 32), Dresden, pp.129-147.

House, J. W., 1981, "Frontier studies: an applied approach," in Burnett, A. D. & Taylor, P. J.(eds.),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spectives*, Chiches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pp.291-311.

Kim, S.-B., 2002, *Transformationsprozesse in den ehemaligen innerdeutschen Grenzraeumen zwischen Sachsen und Bayern - Allgemeine Entwicklungen und Veränderungen der Textil- und Bekleidungsindustrie in den Beispielraeumen Plauen und Hof (Saechsisches und Bayerisches Vogtland)*, University of Leipzig, unpublished Dissertation.

Kraetke, S., 1998, "Problems of Cross-border Regional Integration-The Case of the German-Polish Border Area,"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5(3), pp.249-262.

Kraetke, S., 1999, "Regional Integration or Fragmentation? The German-Polish Border Region in a New Europem," *Regional Studies* 33(7),

pp.631-641.

Kraetke, S., Heeg, S. & R. Stein, 1997, *Regionen im Umbruch : Probleme der Regionalentwicklung an den Grenzen zwischen Ost und West*, Frankfurt am Main, Campus

Lee, T. Y.(ed.), 1991, Growth Triangle : *The Johor-Singapore-Riau Experienc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Lee, T. Y., 1995, "The Johor-Singapore-Riau Growth Triangle :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in McGee, T. G. & Robinson, I. M. (eds.), *The Mega-Urban Regions of Southeast Asia*, Vancouver: UBC Press, pp.269-281.

Lee, T.Y., 1997, "Growth Triangles in Singapore, Malaysia, and ASEAN : lessons for subregional cooperation," in Chen, E. K. Y. and Kwan C. H.(eds.), *Asia's borderless economy : the emergence of subregional economic zones*, Sydney: Allen and Unwin, pp.89-123.

Lezzi, M., 1994, "Competition-Cooperation : A Creative Interplay of Border Regions in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Transborder Institutions," in Gallusser, W. A.(eds.), *Political Boundaries and Coexistence*, Proceedings of the IGU-Symposium Basles/ Switzerland, Berne, Berlin: Peter Lang, pp.322-332.

Loesch, 1943, *The Economics of Location*, English translated by Woglom, W. H., 1954,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Macleod, S. & McGee, T. G., 1996, "The Singapore-Johore-Riau Growth Triangle : An emerging extended metropolitan region," in Lo, F.-C. & Yeung, Y.-M., *Emerging World Cities in Pacific Asia*, Tokyo, New York, Pari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pp. 417-464.

Martinez, O. J., 1994,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in Schofield, D. H.(eds.) *Global Boundaries. World Boundaries.* Vol. 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15.

Minghi, 1991, "From conflict to harmony in border landscapes," in Rumley, D. & Minghi, J.V. (eds.) *The Geography of border landscapes. London*, New York: Routledge, pp.15-30.

Ratti, R., 1993, "Spatial and Economic Effects of Frontiers : Overview of Traditional and New Approaches and Theories of Border Area Development," in Ratti, R. & Reichmann, S. (eds.), *Theory and Practice of Transborder Cooperation*, Basel and Frankfurt: Verlag Helbing and Lichtenhahn, pp.23-53.

Schwind, M., 1972, *Allgemeine Staatengeographie*, Berlin: de Gruyter.

Wastl-Walter, D. & A. Ch. Kofler, 2000, "Grenzforschung als Thema der Politischen Geographie-Rueckblick und Perspektiven," *Klagenfurter Geographische Schriften* 18, pp.259-271.

Wu, C.-D., 1998, "Cross-border development in Europe and Asia," *Geo-Journal* 44(3), pp.189-201.

http://europa.eu.int/comm/regional-policy

http://inforegio.cec.eu.int

교신저자(Correspondence): 김상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번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el: 02-880-6358, Fax:02-877-7656, E-mail: sangbinkim@empal.co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7, No. 2, 2004 (117-136)

Theoretical Models and Research Trends of Border Region Research*

Sang-Bin Kim**· Won-Ho Lee***

**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binkim@empal.com)
*** *Chief Researcher, Land Research Institute, Korean Land Corporation*
(wonholee@iklc.co.kr)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search on the border region, especially herein to consider theoretical models critically and then to gain the implication for appropriate analytical framework or rather theoretical model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rough the review of various literature,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border or frontier was used in a rather ambiguous way. Second, the early models in the border region research have been developed to explain barrier effects, of which the border was considered to play a role. However, as border regions change from the closed regions to the opened ones, more adequate models have accordingly been developed. Third,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typify border regions and they tend to focus on the issue of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egions. Fourth,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the border region research, many border regions are not in isolation or peripheral position any more. Rather they are transformed into potentially prosperous regions through the support of authority as well as inter-regional cooperation.

Key Words : border, boundary, border region, cross-border cooperation, theoretical mode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72-BS1031)